

세계 각국의 '치아의 날', "잔치 잔치 벌였네"

미국 - 할인 쿠폰 제공하기도

일본 - 구강보건 관련 연극 공연, 교육용 비디오 자료 상영

중국 - 공공장소에서 커다란 치아사랑 깃발 흔들기도

6월 9일은 치아의 날이다. 6세 구치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고자 이것을 발음나는 대로 따서 6월 9일로 정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치과계에서는 이 무렵이 되면 각종 행사와 대국민 캠페인을 벌인다. 건강한 치아를 가진 아동을 선발하기도 하고 학교 구강검진이나 근로자 구강검진도 하고, 각종 구강보건 관련 전시회나 캠페인성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하며 음악회나 체육대회와 같은 문화행사도 벌인다.

근래에는 각종 신문, TV 등 매스컴을 이용하여 구강건강에 관한 홍보활동을 하여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상수도불화 사업에 대한 공청회나 치과의료개혁 분야에 관한 토의 등 시사성이 있는 부문의 여론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에서는 치아의 날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몇 나라를 아는 대로 소개해 보고자 한다.



신승철/단국치대 예방치과

미국

미국은 각 주 단위의 지방자치가 중심이 된 국가이기 때문에 치아의 날 행사도 각 주마다 날짜나 행사가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6월 14일을 전후하여 일주일 간을 '아동의 구강건강 주간(Children's Dental Weekdays)'이라 하여 주로 초등학교에서 간단한 행사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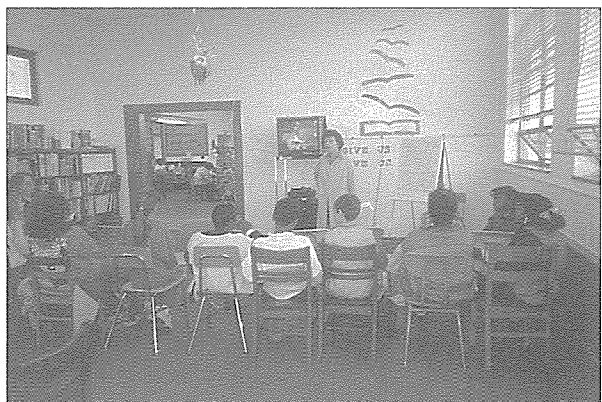
학교에 따라서는 치과 교의로 위촉된 치과 의사를 초빙하여 무료 구강검진을 해 주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개원한 치과 의사로 하여금 학부모가 희망하는 아동에 한하여 소액의 검진비를 받고 정밀 구강검사와 예방적 치면세마(스케일링)를 하기도 한다.

이때 치과 의사는 아동들에게 자신의 치과의원에서 치과진료를 받게 받을 수 있는 할인 쿠폰을 나누어 주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의료법 기준에 의한다면 이는 분명히 과대광고거나 의료윤리 정서에 맞지 않는 행위로 지적할



학교 치과 의사를 초빙하여 희망아동들에게 무료치과검진을 해주고 그 결과를 부모에게 통보해 준다. (미국)



6월 14일 전후로 초등학교를 방문한 치과 위생사들이 비디오와 악치모형으로 아동들에게 구강보건 교육을 시키고 있다. (미국)

사람이 많겠지만 의료광고가 거의 개방된 미국 사회에서는 6월 중순을 전후하여 지역 신문이나 지역 방송에 치과 광고가 많이 등장하며, 할인 서비스 진료 안내가 자주 눈에 띈다.

공공분야에서는 주 구강보건국(Dept. Dental Public Health)이 공중보건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들로 하여금 구강보건주간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입체적인 포스터나 전시물을 제작하여 초등학교 복도나 현관에 세우기도 하고, 학교를 방문한 치과위생사가 구강보건교육용 비디오 테이프를 준비하여 반마다 1시간 정도씩 순회 구강보건교육을 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이 기간 동안에 치과의사들이나 치과위생사들의 자축 파티를 하는 광경도 본 적이 있으며, 도시 빈민들을 위하여 치과진료서비스를 이용한 무료 치과진료를 침례교인 치과의사 모임에서 주관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다.

일본

일본 치아의 날은 6월 4일을 시작으로 일주일간이다. 일본말로 충치를 '무시바'라 하는데 6은 '므' 발음과 비슷하고 齒는 일본식 발음으로 '씨'로서, 四에 해당하는 '시'와 비슷하여 충치를 강조하는 '무씨'라는 발음으로 6·4를 만들어 내고 6월 4일로 정했다고 한다. 이러한 방법을 우리나라에서도 좀 본따서 6세 구치의 6월 9일을 치아의 날로 정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일본에서는 치아의 날에 눈에 띄게 거창한 행사들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영유아의 어머니에게 아동의 구강보건 교육을 시키는 치과위생사. 일본의 보건소 치과는 6세 미만 아동의 예방 진료만을 담당한다.



아동의 치아수호협회가 주관하는 시범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

일본 치아의 날은 6월 4일을

시작으로 일주일간이다.

일본말로 충치를 '무시바'라 하는데

6은 '므' 발음과 비슷하고 齒는

일본식 발음으로 '씨'로서,

四에 해당하는 '시'와 비슷하여 충치를

강조하는 '무씨'라는 발음으로 6·4를

만들어 내고 6월 4일로 정했다고 한다.

이러한 방법을 우리나라에서도

좀 본따서 6세 구치의 6월 9일을

치아의 날로 정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잘 하지 않는 것 같다. 평소에도 모든 지역의 보건소 치과를 통하여 6세 미만 아동들의 불소도포나 부모에게 잇솔질 교습을 철저히 시키고 있다.

근래에는 민간 단체로 일본구강보건협회나 아동의 치아수호협회 등에서 시범 학교 불소양치사업을 홍보하거나 상수도불화에 대한 세미나들을 통하여 일본 치과계와 정계를 움직여 보려고 하지만 아직은 윗분들이 잘 움직여 주지 않는 모양이다.

6월에는 이러한 민간 치과계 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구강보건 관련 연극 공연이나 구강보건 교육용 비디오 자료를 상영하는 것을 자주 접할 수 있다. 또한 치약, 칫솔 제조업체 등 구강위생용품 생산업체가 중심이 되어 구강위생 교육과 상품 홍보전이 열리기도 한다.

수명이 80세가 넘기 때문에 80세에 20개 이상의 자연치를 갖도록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이른바 8020 운동이라 한다.

중국

중국의 치아의 날은 9월 20일이다. 1989년에 중국의 북경의학원 예방치과 부교수인 장보세 교수 등이 중심이 되어 구강의사들의 조직적인 모임을 갖고 중국에서도 구강보건의 날을 정하여 중국 인민들에게 구강보건 교육과 치과 봉사를 하자는 취지에서 9월 20일을 치아 사랑의 날(愛牙日)로 정하였다. 그 후 수년간 산발적이고 지역적인 활동을 하다가 1996년 9월 20일에 처음으로 동시다발적인 전국적 치아 사랑의 날 행사를 벌이게 되었다. 사실 아직까지 중국의 치과의사인 구강의사에 대한 면허증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전국적인 구강의사회를 구성하는 데는 인적 구성 요건을 정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따르고, 이들을 통한 조직적인 구강보건 계몽 활동을 시도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나, 아직도 공산주의식 사회제도가 상당히 존재하는 분위기이므로, 상명하복식의 집단 구강보건 교육이나 집단 구강보건 계몽 행사가 그럴듯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치아 사랑의 날 행사로는 의학원 구강학부(치과대학) 등에서 제작한 환자 계몽용 구강보건 포스터 등을 공원이나 광장에 게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기도 하고, 치과관련자들이 공공장소에 모여 전당대회 비슷한 기념식을 갖고 커다란 치아사랑 깃발을 흔들며, 근로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구강보건활동에 앞장설 다짐결의를 하는 자축행사도 갖는다. 그리고는 구강보건 깃발을 든 소년단 복장을 한 아이들이 앞장 서고 뒤이어 시민과 치과 관련자들이 따라 나서서 가두 행진을 벌이기도 한다.



정주시 제5인민병원 구강학부 구강의사들이 벌인 구강보건가두 캠페인

치아 사랑의 날 행사로는 의학원 구강학부(치과대학) 등에서 제작한 환자 계몽용 구강보건 포스터 등을 공원이나 광장에 게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기도 하고, 치과관련자들이 공공장소에 모여 전당대회 비슷한 기념식을 갖고 커다란 치아사랑 깃발을 흔들며, 근로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구강보건활동에 앞장 설 다짐결의를 하는 자축 행사도 갖는다.

거리에서는 구강의사(치과의사)들이나 위생의사(우리나라의 치과기공사 과정과 유사함)들이 테이블을 차려 놓고 악치모형을 들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올바른 이닦기 교육을 해 주기도 한다.

때로는 구강의사들이 유아원이나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시범적으로 몇 학급에 한하여 구강보건 교육을 하기도 하고, 치약회사들이 제공하는 치약 선물을 나누어 주기도 하며, 커다란 교실을 하나 빌려서 20~30명의 구강학부 학생들이 간단한 기장비들을 여러개 준비해서 선택된 시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무료로 예방진료(치면열구전색)를 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인구 12억의 다민족으로 구성된 중국 인민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과 인식 전환을 위한 구강보건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일회성 행사는 겨우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96년부터 9월 20일을 '愛牙日'로 정하고 기념식을 갖는 중국 구강의사회